

사순 제 4 주일 나해

화답송

시편 137(136), 1-2. 3. 4-5. 6

(후렴) 내 가 너 를 생각하지 않는 다 면, 내 혀가 입천장에 달 라 붙으리 라.

1. 바 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, 시 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.
 2. 우 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압 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.
 3. 우 리 어찌 남의 나라 낮선 땅에서, 주 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?
 4. 내 가 만일 예루살렘, 너 를 생각하지 않는다면,

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, 우 리의 비파를 걸었 노 - 라.
 "시 온의 노래를 불려라. 우 리에게 한가락 불려 보 아라."
 예 루살렘아, 너를 잊는다면,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 리 - 라.
 너 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,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 리 - 라.

복음환호송

(후렴) 말 씀 이 신 그리 스도 님, 찬 미 받 으 소 서.

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
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 시 어,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 네.